

2020 MARCH | vol.1

MEGA DREAM



인문계열,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의 재수성공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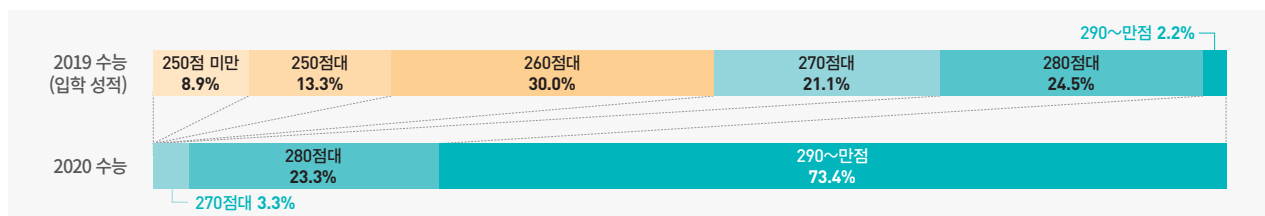
메가스터디학원과 함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재도전을 결정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또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많은 재수생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메가스터디학원에서 재수성공을 이뤄낸 수험생들의 결과를 본다면 성적 상승에 대한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고3 때는 IN 서울권 대학 합격도 어려웠지만 재도전 후 최상위권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한 수험생들의 결과를 통해 지금 이 시간 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값진 순간인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하루하루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고 이겨낸다면 1년 뒤 나의 사례가 이곳에 성공신화로 기록될 것이다.

SKY + 한의예과 합격 | 2020학년도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 정시 합격자 백분위 성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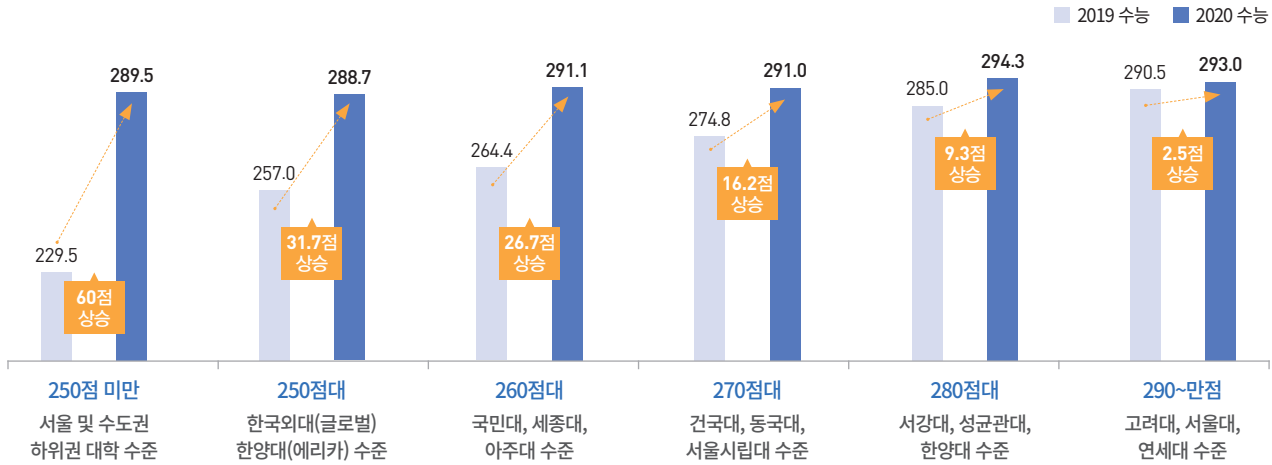
1 점수대별 분포

인문계 최상위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재수를 시작했을 당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백분위 성적 260점대 수험생들이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문계 260점대는 국민대, 세종대 등 서울에 중위권 정도의 대학에 합격 가능한 수준인데 재수 이후 SKY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250점대와 250점대 미만의 수험생도 22.2%나 났지만 모두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2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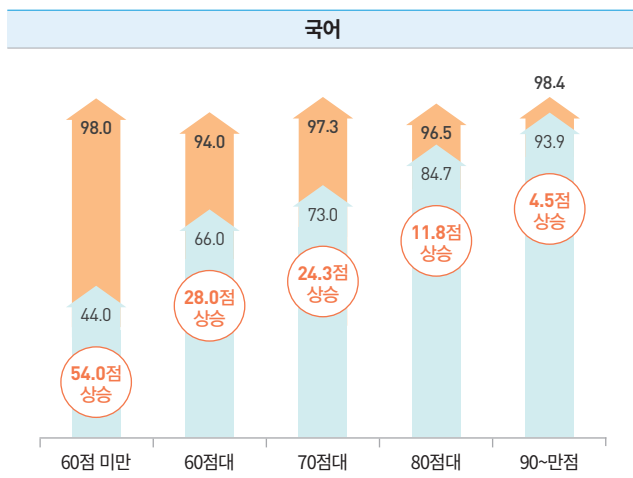
2 평균 점수 상승폭 :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현재 자신의 가능성과 앞으로 몇 점 정도를 올려야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최상위권 대학 합격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입학 성적 260점대 수험생들은 평균 26.7점 상승하여 국수탐(2) 합 평균 291.1 점을 기록했다. IN 서울권 대학 합격이 쉽지 않은 250점 미만의 수험생들은 무려 60점이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작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출발점이 어디든 목표는 290점 이상을 두고 앞으로의 성적을 관리해 나간다면 1년 뒤 희망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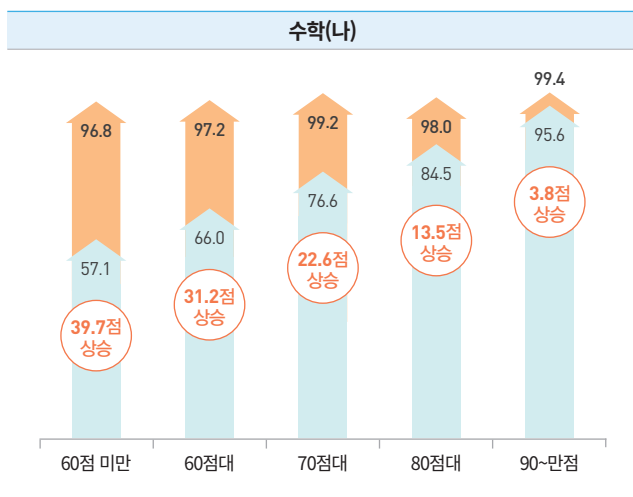
3 영역별 점수 상승폭 : 국어, 수학(나), 사탐(2)

■ 2019 수능 ■ 2020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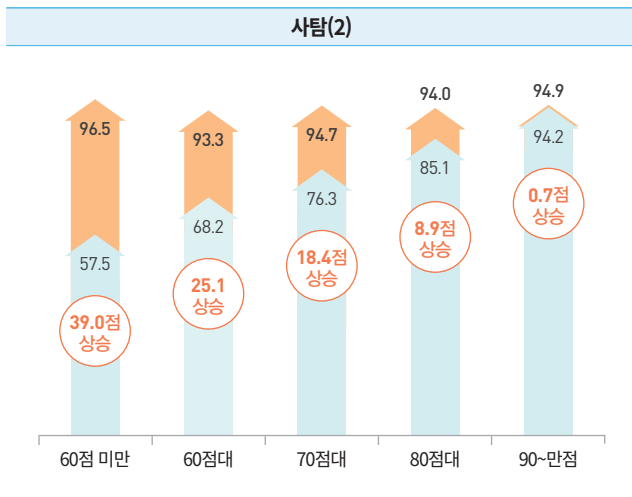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수능 영역별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국어가 다른 영역보다 점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국어는 성적을 올리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인데 재수를 통해 국어 성적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어는 1교시에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수험생도 긴장을 많이 한다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재수생들은 수능 시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꾸준히 키우며 실력을 쌓아나간다면 충분히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학 성적 또한 크게 향상되어 2020 수능에서 모두 평균 96점 이상을 받았다. 인문계 수험생 중 많은 학생이 수학에 자신이 없어 계열 선택 시 인문계를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재수를 선택했고 수능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최근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은 고난도 문항이 다소 쉽게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나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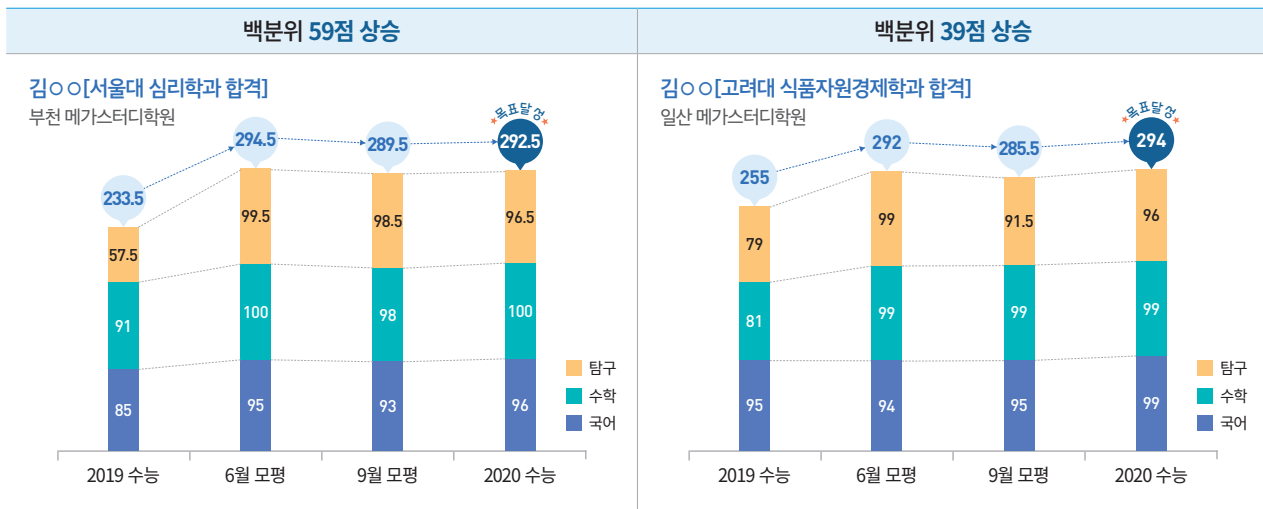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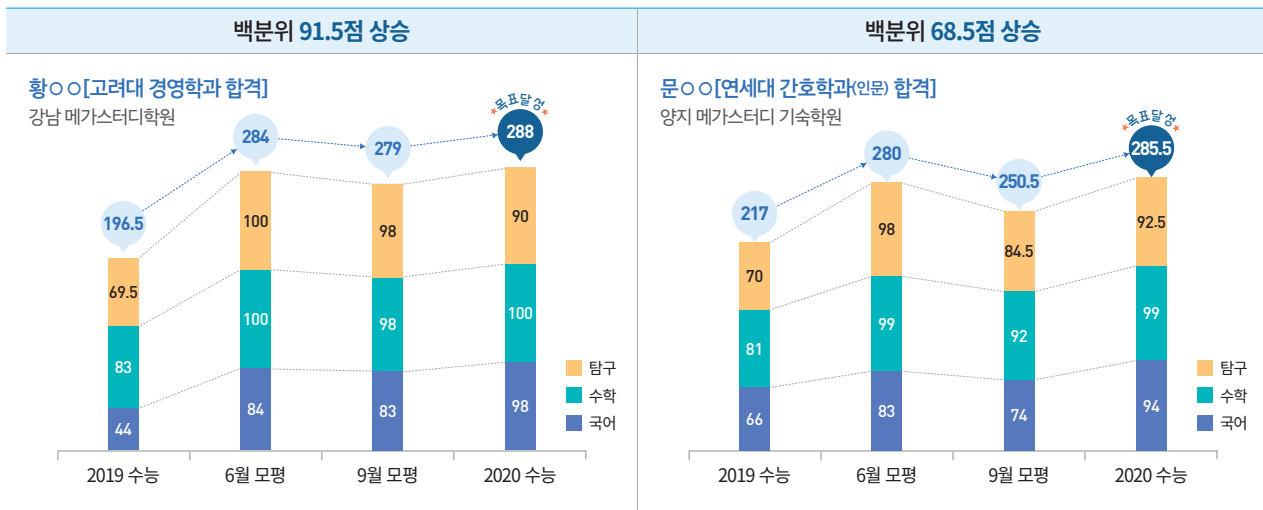


사회탐구 성적의 특징은 입학 성적(2019 수능)이 50점대로 가장 낮았던 수험생들의 성적이 2020 수능에서는 평균 96.5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탐구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점수를 올리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한다면 6월 모평 이후에 점수 올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4 상승폭이 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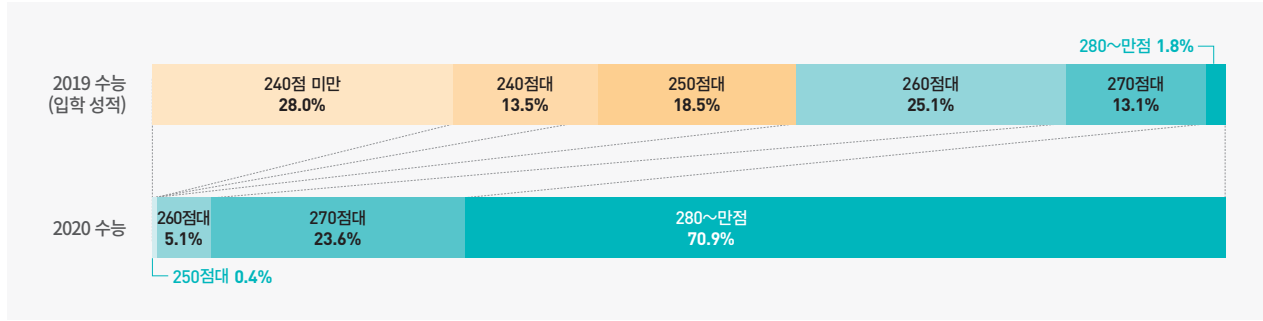
성적이 크게 향상된 수험생들의 점수를 살펴보면 국수탐(2) 백분위 합이 2019 수능 대비 91.5점 상승한 사례가 있다. 특별한 수험생의 사례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에는 자신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적 향상을 크게 한 수험생의 대부분은 6월 모평에서 성적이 크게 오른다. 따라서 2021 수능에 앞서 6월 모평에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매달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몇 점씩 올려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적이 꾸준히 오를 수 있지만 연세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문○○ 학생처럼 6월 모평 이후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9월 모평에서 떨어지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2021 수능이기 때문에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여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 교대 합격 | 2020학년도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 정시 합격자 백분위 성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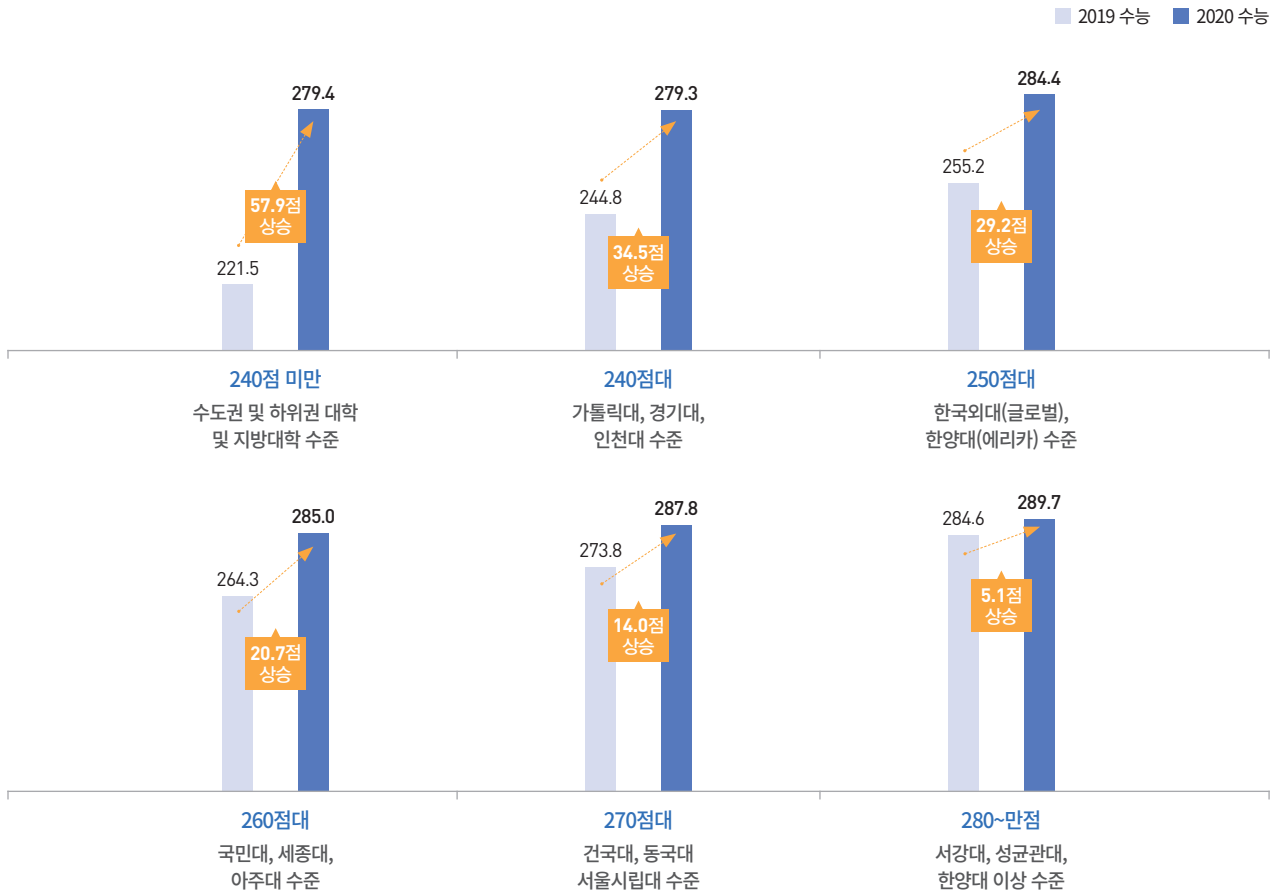
1 점수대별 분포

지난해 메가스터디 재원생 중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연고를 제외한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입학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수능 국수탐(2) 백분위 합 240점 미만인 수험생들이 2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백분위 합 240점 미만이면 IN서울 진학이 어려운 성적인데 재수를 한 뒤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성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입학 성적이 260점대 수험생들도 25.1%로 많았는데 세종대, 인하대 등 서울 중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1년 더 노력하여 과반수가 280점 이상을 받아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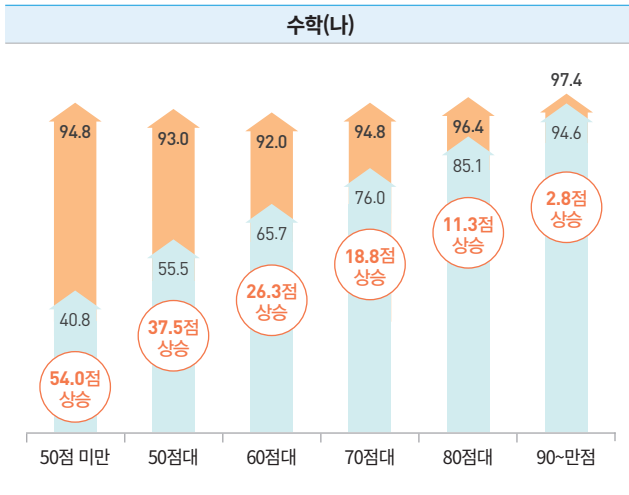
2 평균 점수 상승폭 :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최상위권 대학 합격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입학 성적 240점대 미만 수험생들은 무려 57.9점이나 상승하여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279.4점을 기록했다. 입학 성적 260점대의 수험생도 평균 20.7점 상승하였다. 입학 성적이 280점대 이상의 수험생 또한 평균 5.1점 상승하였다. 입학 성적(2019 수능)이 높은 수험생들은 시작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수대보다도 철저하게 수능 성적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맞힌 문제도 정말 실력으로 풀었는지 등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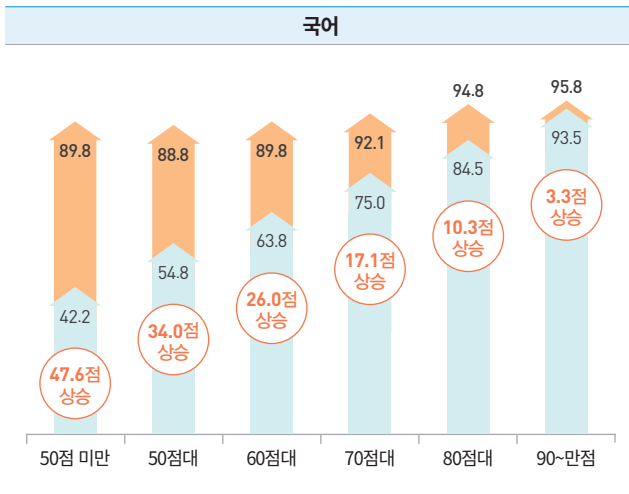
3 영역별 점수 상승폭 : 국어, 수학(나), 사탐(2)

■ 2019 수능 ■ 2020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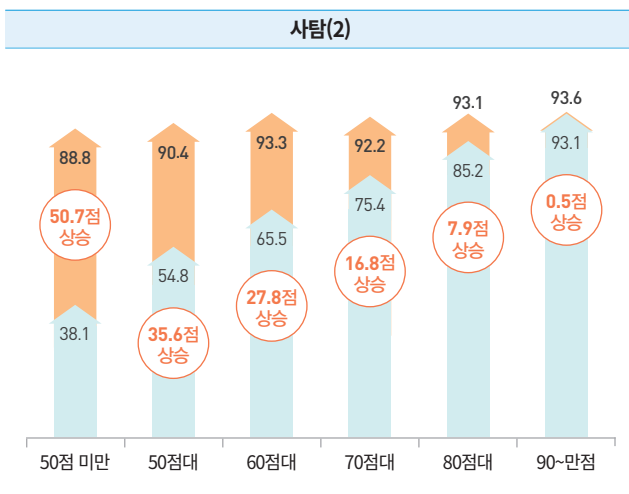
성균관대, 한양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재정부 수험생들의 수능 영역별 점수 상승폭을 살펴보면 수학이 다른 영역보다 점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계 수험생은 아무래도 자연계 수험생보다 수학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학이 자신 없는 영역일 수 있다.

그런데 재수를 통해 수학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 결국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성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 인문계 모집단위는 정시 수능 전형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서강대 45.2%, 성균관대 40%, 중앙대 40%, 한양대 상경 40%)이 높기 때문에 수학 실력을 제대로 쌓아놔야 유리할 수 있다.



국어 성적 또한 전 구간에서 크게 상승했다. 국어는 1교시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수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매달 모의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작년 재정부 수험생들의 성적 상승 결과를 통해 자신도 그렇게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멘탈까지 관리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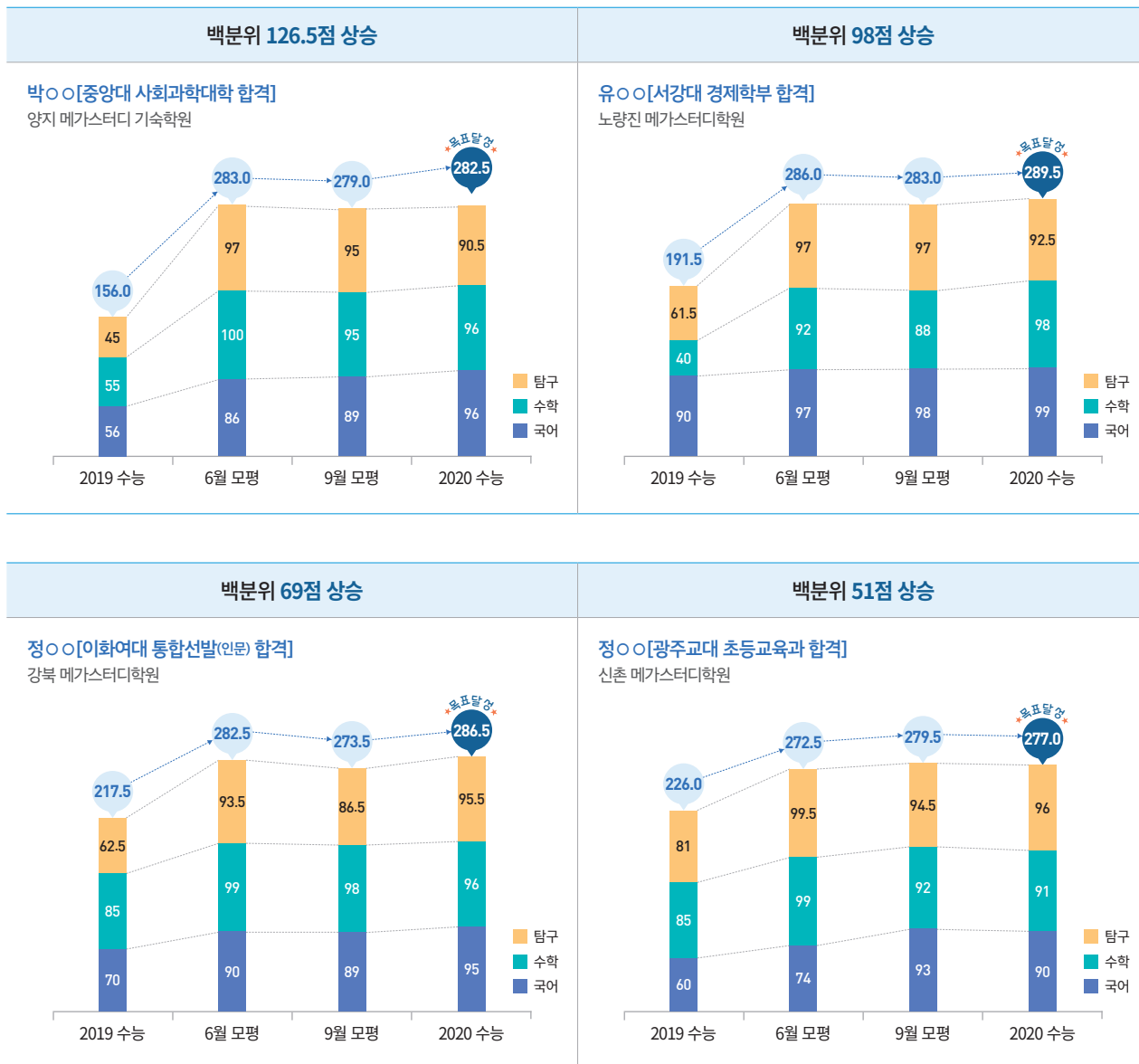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입학 성적(2019 수능)이 50점 미만의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수능에서 평균 50.7점 상승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탐구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성적을 올리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낮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단, 사탐은 과목 선택에 따라 1~2개만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더 도전하는 올해는 다 맞췄다는 각오로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상승폭이 큰 사례

앞서 살펴본 SKY 그룹의 합격 사례처럼 성적 향상을 크게 한 수험생의 대부분은 6월 모평에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의 경험을 한다. 국수탐(2) 백분위 합이 2019 수능 대비 126.5점 상승하여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도 6월 모평 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모평까지 몇 점을 올려야겠다는 큰 계획을 세운 뒤,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매달 실시하는 모의고사에서는 몇 점씩 올리면 되는지 역으로 계산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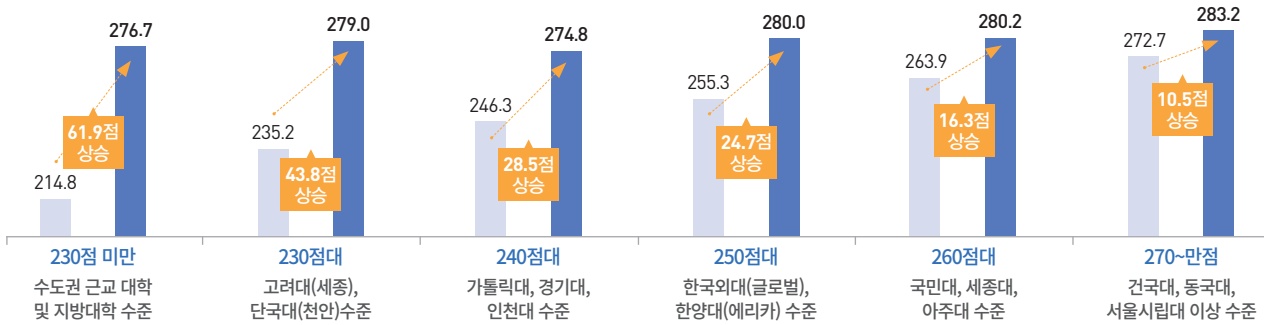
예를 들어 지난해 수능 성적을 국수탐(2) 백분위 합 220점 받은 수험생이라면 6월까지 280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5월 모의고사에서 265점, 4월 모의고사는 250점, 3월 모의고사는 235점 이상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매달 15점씩 상승한다고 한다면 각 영역별로 매달 5점씩 상승해야겠다는 목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수를 쪼개면 한 번에 60점 올려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그밖에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메가스터디학원 재원생의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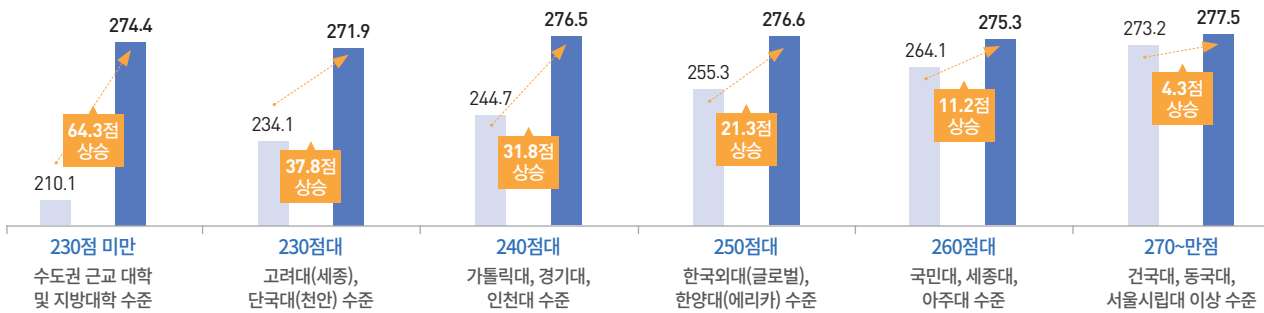
▶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에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 상승폭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성적]**

■ 2019 수능 ■ 2020 수능



▶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에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 상승폭 [국수탐(2) 백분위 합 평균 성적]**

■ 2019 수능 ■ 2020 수능



영역별 학습 TIP | 토틀 장학생이 말하는 성공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 영역

• **국어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면?**

국어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은 화법과작문과 문학입니다. 화법과작문의 경우 평가원 기출의 선지와 유형을 분석해 비슷한 선지나 유형이 나올 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1세트씩 풀어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문학의 경우 수능특강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 연계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문학은 다급하게 풀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비문학 지문을 정해진 방식대로 읽는 연습을 통해 수능에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김보민 | 경희대 한의예과(인문) 합격

• **열심히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국어는 시간과 성적이 비례해서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약한 문법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하원 후 집에서 20분간 문법 5문제 풀기, 5문제 복습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였고 수능국어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공부는 학원에서 전부 마치고 집안의 책상에는 1년 내내 국어 문제집 한권과 필기구 한 자루만 놓여있으면 이 과제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강도 단기 집중학습이 아닌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준 | 서울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합격

수학 영역

• **수학 성적이 낮는데 과연 수능 때까지 올릴 수 있을까?**

유독 수학 과목에 취약했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마주하는 매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막힘없이 잘 푸는데 저만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친구들은 모의고사 21번 문제의 답을 비교하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에 손도 대지 못했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혼자만 이해하지 못할 때, 며칠 전에 풀었던 건데 다시 풀어보니 모르겠을 때 자책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플래너에 '모르면 다시 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하면 된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선생님께 문제의 모르는 부분을 몇 번이고 계속 여쭙어보았습니다. '복습만이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문제일지라도 완전히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고 다시 풀면서 수학에 대한 막막함을 천천히 극복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 수학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차피 난 못 풀거야'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도 생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 조성아 | 연세대 행정학과 합격

•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 방법이 있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일일 30제 노트를 사용하여 매일 문제를 푸는 양을 확인해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마다 넘버링을 해가면서 매일 풀 문제 수를 확인했습니다. 노트에 문제를 풀고 채점은 문제집에 하며 어려웠던 문제나 실수했던 문제는 꼭 표시해두고 세 번, 네 번씩 풀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매번 그냥 넘어가니 실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강사들의 조언을 토대로 실수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실수한 내용을 노트에 세세히 정리하면서 실수를 머리에 각인시켰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내가 자주 실수하는 계산이 나온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실수를 줄였습니다. 수학 역시 기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기보다 기출에서 자주 나온, 앞으로 꼭 나올만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익히는 공부를 한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장규빈 | 전북대 치의예과 합격](#)

영어 영역

• 절대평가로 소홀히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1등급이 아닌 100점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문제집을 풀 생각하지 말고 EBS 교재를 적어도 3회독해야 합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① 모르는 단어 없도록 수능 영단어집 매일매일 외우기, ② 지문에 있는 모든 문법 포인트 생각하며 N회독하기, ③ 글의 첫머리만 봐도 내용이 다 기억나게 정리하기, 이 정도만 해도 실력 향상 무조건 보장하고 실전에서 연계된 지문 3초컷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연계를 70퍼센트인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끈질기게 매달리세요. [→ 오주은 |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

저는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을 정해 두고, 이 시간에 주로 EBS 영어 지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이 지문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EBS 영어 지문을 차근차근 학습하면서, 그 중 주제나 소재, 글의 짜임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문들과 학원 선생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지문들에 제가 직접 빈칸추론이나 순서, 삽입 등의 문제를 만들어 보며 학습하였습니다. [→ 박재웅 | 대전대 한의예과\(인문\) 합격](#)

영어는 수능특강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특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는데, 저는 영어 또한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특강은 내용을 파악하고, 지문 구조도를 통해 낯선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연습하는 데 보았고, 기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오답선지를 내는지 파악했습니다. 또한 모르는 단어는 예문과 함께 적어두어서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단어가 쓰이는 지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지문 속에 그 단어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 양희수 | 경상대 의예과 합격](#)

사회탐구 영역

• 1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데 완벽하게 공부하는 비법이 있는지?

사회탐구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등급컷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한 문제만 실수해도 원하는 등급과 성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빠뜨린 부분이 없도록 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필기해주는 것을 꼼꼼하게 노트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암기한 것을 그대로 빈종이에 써보고 처음 필기 노트와 비교해가며 외우지 못한 부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뿐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빼놓지 않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조성아 | 연세대 행정학과 합격](#)

생활과윤리는 기본 개념에서 심화 개념까지 파생, 연결짓는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들은 개념을 꼼꼼하게 복습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의 지문과 선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paraphrasing'이었습니다. 지문에 쓰인 단어나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연습을 한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에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바로 문제를 보고 어떤 단원에서 출제된 것인지 알도록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 단어, 구절이 어떤 단원에서 나오는지 알면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하는 개념의 범위를 확 좁힐 수 있어서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도표를 연습할 때는 선지까지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표의 다양한 생김새에 당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의 분류기준, 행렬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 김도경 | 서울대 영어교육과 합격](#)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근현대사 이전에는 중국하고 일본 나오는 파트는 많이 겹치고, 근현대사로 들어오게 되면 동아시아사가 조금 더 세세한 거 빼고는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두 과목을 선택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① 처음부터 연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연도 같은 디테일한 점에만 집착하면 그거 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한 뒤 디테일 한 부분에 들어가야 나중에 줄기(연도)하고 몸통(사건의 흐름)이 보완되어 쉬워집니다. ② 연표는 꼭 자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잘 나오지 않는 연도는 쳐내고, 새롭게 알게 된 연도는 추가하면서 자신만의 연표를 만들어야 날마다 복습하기도 쉬워집니다. ③ 수능특강 날개를 꼼꼼하게 보세요. 이번 수능 세계사에 수능특강 날개 끄트머리에 있던 리더에 관해서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 이근표 | 한양대 사회학과 합격](#)